

## 군공항 · 공공의대 등 해넘기는 지역 현안들 해법 찾을까

광주, 군공항 이전 · 어등산 개발 ‘제자리’

전남, 흑산공항 · 공공의대 · 해상풍력 ‘하세월’

광주 · 전남 지역 일부 현안사업들이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해를 넘기게 됐다. 지역민들의 삶과 패러다임이 변할 수 없는 숙원사업에서 해묵은 과제까지 이해당사자 간 갈등으로 표류하거나 국회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한 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됐다.

2023년 토끼의 해, 계묘년(癸卯年)에 해묵은 현안들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역 최대 현안이자 해묵은 과제인 군(軍) 공항 이전사업이 국방부 평가 결과 ‘이전이 타당하다’고 결론난 지 6년째 답보 상태다. 광주시는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는 대전환의 계기로 보고, 이전사업 추진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지만, 헛머리 격인 ‘군공항 이전특별법’이 여 · 야 간 극심한 대립 속에 헛바퀴만 돌고 있다.

군공항 이전사업은 2028년까지 이전 군공항 건설 4조791억원, 이전 주변지 지원에 4508억 원 등 모두 5조 7480억 원을 들여 종전부지(8.2㎢)를 개발한 다음 그 수익금으로 15.3㎢ 규모의 신공항을 짓는 대형 프로젝트다.

광주시는 정부 지원을 골자로 한 군공항 이전특별법과 대구 · 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연

내 제정에 적극 협력하기로 대구시와 손을 맞잡는 등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원내 1당 더불어민주당, 국방부와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한 전방위적 행정이 진행 중이다.

이 같은 노력에도 여 · 야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연내 특별법 제정은 사실상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17년째 표류중인 어등산관광단지도 기약이 없다. 부족한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부터 추진됐지만 민간사업자가 재정난과 사업성 부족 등을 이유로 잇따라 사업을 포기하면서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023년까지 군 포사격장으로 황폐화 한 어등산 일원에 유원지와 골프장 · 경관 녹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15년째 표류하면서 현재 27홀 규모의 골프장만 덩그러니 운영되고 있다.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관광단지 조성 민간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관광개발(주)에 프브이 컨소시엄(가칭)을 선정 한 뒤 협상당사자인 도시공사가 서진과 협약체결을 위한 협상을 추진했지만 시와 도시공사가 해석한 총사업비를 서진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

시는 공모지침서에서 정한 ‘우선

협상대상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관련 규정과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진행, 의견진술 등의 행정절차를 거친 뒤 사업자 선정을 최종 취소한 바 있다. 서진 측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오는 22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서는 대법원 판단까지 받아야 할 수도 있어 조속한 사업정상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안전성 평가에 들어간 지산C 진출로 문제와 백운광장 지하도 설치, 복합쇼핑몰 건립 등의 현안은 어느 정도의 물꼬는 댔다는 평가지만, 사업의 실현 가능성여부와 구체적 윤곽은 내년여야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인 흑산공항은 건설을 결정짓는 국립공원심의위원회 연내 개최가 사실상 불발되면서 또 다시 해를 넘기게 됐다.

‘정부 부처 간 협의 지연’이 계속되면서 환경부가 다른 지역 국립공원 구역 조정을 매듭 짓지 못해 흑산공항 건설사업에 불똥이 튀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여당 관계자들의 약속과는 달리 공사 착공은 또 다시 내년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지만 뚜렷한 해법은 나오지 않고 있다.

전남도민들의 30년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도 별다른 소득 없이 해를 넘기게 됐다.

2년 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협회 반발이 파업으로 이어진



‘차 빼세요’ 21일 오후 광주 북구 한 도로에서 광주소방본부가 소방 긴급출동 방해차량 강제 처분 훈련 중 불법 주차차량을 소방차가 밀어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광주시 제공

후 정부가 계속 눈치를 보고 있는데 ‘공공의대 설립 특별법’ 제정을 놓고 본인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려는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앞다퉈 발의하면서 소지역주의 갈등 양상까지 보이고 있다.

전남도가 RE100,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무역장벽 대응을 위해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로 육성 중인 해상풍력 산업은 인 · 허가만 5~6년이 소요되면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인 · 허가 단축을 골자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건의했지만, 메아리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있다.

관련 법안도 하세월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인 · 허가기간을 2년 10개월로 단축하는 풍력특별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이 어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1년6개월째 소관 상임위 문턱조차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도기 기자

## ‘동지’ 출근길 강추위...충남 · 전라권에 폭설

10~25cm 많은 눈...광주시 자원 총동원 제설작업 진행

절기상 동지(冬至)인 목요일 22일은 충남권 등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고 기온도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기상청은 21일 “내일(22일) 충남권과 전라권, 제주도를 중심으로 매우 많은 눈이 오겠고, 전국이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추워지겠다”고 예보했다.

22일부터 24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남서해안, 전라권(전남동부남해안 제외), 제주도중산간, 제주도산지, 울릉도 · 독도에서 10~25cm 가량으로 관측된다. 전북, 전남권서부, 제주도 중산간 등 많은 곳은 30cm 이상, 제주도산지 50cm 이상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인다.

충남권내륙, 충북중 · 남부, 제주도(중산간, 산지 제외)에도 5~15cm, 경

상서부내륙, 전남동부남해안, 서해5도 등에 3~10cm, 경기남서부, 충북북부 등에 1~5cm의 눈이 예상된다.

같은 기간 예상 강수량은 충남서해안, 전라권, 제주도, 울릉도 · 독도 등에서 5~30mm, 충남권내륙, 충북중 · 남부, 경상서부내륙, 서해5도 등에서 5mm 내외 등이다.

밤부터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5~1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져 춥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0도, 낮 최고기온은 -8~3도가 되겠다.

주요 지역 아침 기온은 서울 -9도, 인천 -8도, 수원 -9도, 춘천 -11도, 강릉 -4도, 청주 -6도, 대전 -6도, 전주 -4도, 광주 -3도, 대구 -4도, 부산 -1도, 제주 4도로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6도, 전주 -2도, 광주 -1도, 제주 4도로 전망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한편 폭설예보 속 광주시는 장비 · 인력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제설

작업에 나선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2일 부터 많은 눈이 예보됨에 따라 재난 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는 한편 자체 보유 장비와 민간장비, 인력을 총동원해 527개 노선 685km 구간의 제설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경사진 도로와 상습결빙 구간에는 기상 상황에 대응, 제설제를 집중 살포해 도로가 얼지 않도록 한다.

폭설 비상단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발송 · 대중교통 증편 · 등교시간 조정 · 공직자 눈치우기와 출근시간 조정 등 원활한 출근길 대책도 시행

한다. 광주시와 자치구는 내년 3월까지 제설자재(염화칼슘 · 소금)를 시민들에게 제공한다. 제설자재는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과에 요청하면 된다. /조일상 기자

전남 탄소중립 실천 성과	2면
이태원 국정특위, 현장조사	3면
부동산 규제 확대	4면

# 생활속 물 절약 함께해요!





**양변기에 물 채운병 넣기**



**설거지 전 미리 휴지로 닦기**



**양치컵 사용하기**



**한 번에 모아서 빨래하기**



**전라남도 동부지역본부**